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중 헌

발행인 : 신성종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중 헌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FAX :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오늘 태신자 카드 기록

모든 교인은 빠짐없이 전도 대상 1명 이상 선정
“내 집을 채우라”는 지상 명령에 모두가 순종해야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기 위한 92년도 배가운동이 배가운동본부 조직의 활동과 동시에 실천에 들어갔다.

불신자를 교회로 초청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개인 전도 운동을 통하여 우리 중헌교회를 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부흥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이 배가운동은 금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이제 오늘부터는 태신자 카드 작성이 일제히 실시되고, 단계별로 청장년 초청 신자화 운동, 일꾼 훈련, 개인 전도, 구역 증설을 목표 삼아 ‘내 집을 채우라’는(눅14:23) 실천 운동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태신자 카드는 오늘 주보와 함께 배포한다. 중헌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제출용과 개인보관용을 모두 기록하여 예배후 본당 로비에 마련되어 있는 제출함에 넣어 교회가 개인 전도에

적극 협조하여 보다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교회학교는 각 부서별로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게 된다.

추진위원장인 윤명식 장로는 이번 배가운동을 전개하면서 “우리 교회의 순수성과 복음 진리의 전통성을 계승하면서 불신자 전도에 최우선 전략 수립과, 교구를 비롯한 남녀전도회, 교회학교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일체감을 갖고 구령 운동에 앞장 서 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장년4부 특강
‘예배’에 관하여

장년4부는 지난 3월 22일 정규 남 목사를 모시고 특강을 실시하였다.

“어떻게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을까?”를 주제로 진행된 이 특강을 통하여, 회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31일에 집사 장립 및 권사 취임식

피택집사 6명의 집사 장립식과 피택권사 49명의 취임식이 오는 3월 31일(화) 저녁 7시에 본당에서 거행된다.

91년 9월 공동의회에서 피택된 이래 소정의 교육을 받은 피택 집사와 피택권사는 지난 28일 고시와 면접을 최종 통과하여 이날 장립 및 취임하게 되는 것이다.

취임식은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서기행 목사(중경노회장)가 기도, 남상훈 목사(수도노회 서기)가 성경 봉독을, 이만수 목사(수도노회장)가 설교를, 김현중 목사(중경총회장)와 이규일 목사(중경노회장)가 권면을, 김창인 원로목사가 축도를 맡는다.

카메라 초점



▲성경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중헌인들의 열기로 성경연구원의 모든 강의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다.

청지기훈련 4월 2일에 제1차 실시
교구별일정에 따라 자발적 참여 요청

실력있는 그리스도인의 배양을 위하여 교회가 준비하여 온 청지기훈련의 제1차 훈련이 오는 4월 2일(목)과 3일(금) 중헌기도원에서 시작됨으로써, 앞으로 5월 8일까지 6주 동안 계속된다.

이 청지기 훈련은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를 표어로 내걸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를 주제 성구로, “너시온아 이소식”(255장)을 주제 찬송으로 삼아, 이요한 목사(한국세계선교연구소장, 와그너교회성장연구원

장)를 강사로 모시고 진행된다. 또한 전도를 금년도 최대의 중점 사업으로 삼고 있는 교회의 목회 방침에 따라 훈련기간 동안 각 교구별로 지도 목사를 중심으로 실제적인 전도 방안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훈련 참가 신청은 현재 사무국에서 접수 중인데, 주최측은 중헌의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참가하여 훈련된 종으로서 주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파키스탄 선교보고회
저녁 7시엔 선교패 및 기금도 전달

파키스탄 의료선교부에 대한 지원이 계약 만료로 종결됨에 따라 세계선교위원회(위원장 남선우 장로)는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선교관 403호에서 선교

보고회를 갖는다.

한편 저녁 7시 찬양예배시에는 선교패와 함께 앞으로 이 사역을 위하여 일천만원 상당의 의료기금을 전달한다.

신성종 목사
미국에서 부흥회 인도차 출국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미국에서 개최되는 두 차례의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하여 오는 4월 6일 출국하여 17일 귀국하게 된다. 신 목사는 6일 부터 10일까지 휴스턴한인교회(정인찬 목사

시무)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재복미 한인기독교 교역자 수련회에서, 10일부터 12일까지는 뉴욕 켄트한인교회(한진관 목사 시무)에서 개최되는 92년 뉴욕전도대회에서 말씀을 증거한다.

실업인선교회특강

실업인선교회(회장 남선우 장로)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권 관리상의 잘못과 자금 조달이 원활치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특강을 실시한다.

● 일시: 3월 30일(월) 저녁 6시 30분
● 주제: 기업인을 위한 채권 관리 및 자금 조달
● 강사: 조규완 소장 (한국기업법률연구소)

중헌프리즘

◎...민족 복음화를 위한 92년도 전교인 배가운동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 운동본부 조직이 완료되었고, 지난 주간에는 기획분과 회의회를 갖고 구체적인 실무 작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밑도 있는 협의도 끝났다. 그리고 교역자 팀은 별도로 수요일 2부 예배 끝난 후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전도 활동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도 수립했다.

우리 교회가 금년 한 해를 전도의 해로 정하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 지 하나님께 축복받을 일이고, 또 이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데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배가운동이 조직의 일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교역자진에만 맡겨놓고 일반 성도들은 ‘나 몰라라’ 하는 방관 자세가 된다면 이것 역시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중헌에 속한 모든 교인들(교회학교 학생 포함)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하여 교회로 데리고 올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교인들은 그 의무를 다한다는 자부심도 갖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전개되는 태신자 카드 기록으로부터 불신자가 성숙한 교인이 되기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며 이 일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는 헌신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

◎...청지기훈련이 이번 주 목요일(4월 2일)부터 중헌기도원에서 실시된다. 예년과 달리 강제 참석을 지양하고, 교인들 스스로 신앙 성장을 위한 양육과 정성을 감안, 모처럼의 시간을 내서 각 교구별로 참석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주최측의 희망사항이다. 약

2개월간 진행되는 청지기훈련에 온 교회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신앙을 체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금번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로 우리 교회가 정치 바람에 편승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나 모 일간지에 실린 기사나 몇몇 장로들의 이름으로 발송되었던 불온 유인물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밝힌다. 성도들은 이에 동요됨 없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중헌강단

신성종 목사

세 가지 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됄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엡5:22~6:9)

사람을 한자로 쓸 때 둘이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모양을 한 사람 인 ‘人’자와 사이 간 ‘間’자를 써서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 사이에 사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인간들 사이에는 세 가지 귀중한 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남편과 아내 사이의 줄, 둘째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줄, 셋째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줄입니다. 이 줄들을 어떻게 엮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녀가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위대한 책입니다.

1. 남편과 아내 사이의 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를 셀 때 여자들의 수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세 가지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란 지옥의 딸감으로 이용하려고 창조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였고, 셋째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교도

것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닌가 혹은 모세가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 증서를 쓰는 동안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수치되는 일”이란 예수님 당시의 유명한 랍비 할렘에 의하면, 아내가 길에서 가래침을 뱉거나 요리를 잘하지 못해 남편이 안되겠다 싶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수치되는 일이란 음행이라고 해석 하셨습니다. 즉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남자가 불평등하던 때에 신약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엡5:22)

아내들은 하늘에 계신 주님과 남편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야 합니다. 성경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주님께 대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복종이란 종이 주인에게 강제적으로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남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지도력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됄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됄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교회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아니라 바로 리더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게 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엡5:25~28)

이 말씀을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희생하면서 아내를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치고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물질적인 데 강조점을 둔 것이고, ‘순종한다’는 말은 정신적인 데 강조점을 둔 것입니다. 요즈음은 교육 수준이 높아졌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보다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골3:20).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엡6:2, 3)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축복받기 원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 아버지나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6:4)

믿음 안에서 사랑의 마음과 주님을 섬기는 자세 필요

의 관계가 바로 가정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엡5:31~33)

사람이 죽 남편이 부모님을 떠난다는 것은 지리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경제적인 독립과 정서적인 독립을 의미합니다. 부모님과 의논해야 할 것은 의논해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결혼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아내와 합하여”라고 하였는데, 이는 부모님에게서 떠난 후에는 의논의 대상이 아내라는 것입니다.

2. 부모와 자녀 사이의 줄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엡6:1)

십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다섯째 계명부터 열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부모님 공경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인 구약시대에는 그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가르

치며는 부모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낳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도록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3.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줄

“종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엡6:5)

요즘 노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노동자는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눈가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하듯 하면 언젠가는 사용자에게 인정받고 성공하게 됩니다.

“상전들이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고니라”(엡6:9)

세상이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선한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위치가 바뀌는 때가 되어도 한번 배운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노사 관계를 바로 하는 비결입니다.

주님 안에서 세 가지 줄을 잘 엮어나가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어

들은 여성들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이나 여자도 인격있는 존재들이며 동등한 인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여자들의 인권이 존중되어 집니다.

구약시대의 이러한 여자를 경시하는 사상은 당시의 이혼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은 남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 다. 그런데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엡5:23, 24)

성경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할 때는 정관새가 사용되고 있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할 때는 정관새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은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 말에 복종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 다. 단지 항상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보여주셨고, 집사가에 달라실으 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세상 권세자들이 마음대로 명령하고 지배하는 식의 의미가

최근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단들을 살펴보면 시한부 종말론이 가장 많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미선교회의 92년 10월 28일 밤 18시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며 그때 자기들만이 공중휴거한다는 주장 같은 것이다.

이단이 발생하는 사회적 배경을 보면, 첫째가 무엇보다도 사회가 안정되었을 때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이단이란 사회가 혼란할 때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돌지 알지 못하여 방향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최근의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사회적 불안과 백을 같이 하고 있다.

다음은 기성 교회가 건전할 때에는 절대로 이단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 하여도 숨어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기성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할 때에 이단들이 춤을 추는 것이다. 사실 오늘의 교회는 참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갈급한 심령들에게 영적으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고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는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은 생겨나는 것이다. 오늘의 설교를 보면 만사형통, 소원 성취, 만병 통치, 사업 성공, 건강 장수, 행복 보장 등 기복적인 데만 치중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셋째는, 성경적 무지에서 이단이 생겨난다. 사실 이단들만큼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사람들도 드물다. 그러므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넷째는, 교회의 부정 부패에서

>총헌논단<

성경적 견지에서 본 정통과 사이비와 이단

신성종 목사

본고는 지난 3월 12일(목) 한국기독교학술원(이사장 정진경 목사, 원장 이종성 목사)이 주관하여 영락교회에서 개최되었던 제3회 학술공개강연회에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발표한 내용을 두 차례로 나누어 전제한다.(편집자주)

이단이 생겨난다. 예를 들면 구원과의 경우 저들은 먼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노출시킨 후에 구원에 대한 깨달음 자체를 구원이라고 하면서 기성 교회의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장로, 집사 제도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시니 기도가 불필요하다고 하면서 유명한 사업을 돕는 것이 기도라고 하였다. 또한 자기들의 모임으로 끌어들이는 구원과의 대구에 있는 모 장로교에서 생겨진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틈을 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죄책감에서 해방시켜주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일단 구원받으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대판 영지주의자이다.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집단 우월감과 중앙 집권적 체제를 가지고 있다.

다섯째는, 기성 교회의 분열에서 이단이 생겨난다.

여섯째는, 신학의 부재와 극단적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이단의 온상이 된다.

3. 이단에 끌리는 이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단에 끌려가는가?

장로교신학대학의 김중은 교수는 《빛과 소금》 87년 3월호에서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악령의 역사요, 둘째는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요, 셋째는 성경에 대한 무지요, 넷째는 성경의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모두 맞는 말이다.

4. 성경에 나타난 이단 식별법

첫째, 무엇보다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거짓 선지자요 자칭 목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그 열매로 구별하여야 한다(마7:18).

둘째, 뱀처럼 사특하고 위장술이 뛰어나며 막이를 보면 뱀이 개구리를 삼키듯이 서서히 삼킨다. 이들은 거짓과 진리를 섞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전문가까지도 구별하기가 어렵다. 이들은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특징을 가진다(마4).

셋째,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4절의 말씀대로 정욕적이며,

이기적이며, 도덕적으로 문란하다.

넷째, 돈을 사랑하며 탐심의 소유자들이다(딤후1:5).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가정을 파괴시킨다(통일교나 구원파나 다미선교회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다섯째, 기존 권위를 무시한다. 기성 교회를 모두 사탄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기들만이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14만4천명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자기들만이 구원이요, 피난처임을 강조한다. 이것은 기독교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죄이다.

여섯째, 당돌하고 고집이 세다(벧후2:10).

일곱째, 공허하고 일관성이 없다.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쉽게 밝혀지지 않는 것은 비범함처럼 진리와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주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금년이 마지막이라고 하여 교인들의 재산을 빼앗는다. 특별히 과부들의 재산을 좋아한다.

여덟째,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을 부인한다(단1:15).

아홉째, 열심이 많다(갈4:17)

). 기성 교회 교인들처럼 직장에 다니면서 믿는 식의 파트타임 신자가 아니라, 직장이고 가정이고 다 집어치우고 저들의 모임에만 열심을 낸다.

열번째, 이들은 자기들만이 사용하는 경전 혹은 예언집이 있고 이것을 성경과 동일시하지만, 실제로는 성경 이상의 권위를 부여한다.

열한번째, 마스크를 많이 활용하며 권력, 금력과 항상 밀착되어 있다.

5. 이단을 방지하려면

첫째, 무엇보다도 교회 지도자들이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가져야 한다. 신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고 성경에 정통해야 하며 계속적인 연구를 통한 지적, 영적 재충전이 있어야 한다. 교회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목회자보다 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져야 이단이 발을 붙이지 못한다. 이단이란 독버섯은 사회적 혼란이 없이는 자리를 잡을 수 없고 또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 칼빈이 말한 계속적인 개혁이 있어서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될 때 이단은 발을 붙이지 못한다. 이단은 어둠 속에서 자라나는 독버섯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 이단은 기성 교회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되고 그 틈에서 자라기 때문이다. (끝)

(이 내용을 실은 테이프가 테이프보급소에서 칠백원에 판매되고 있다.)

장로칼럼

.....

북한 선교 우리의 사명



오진국 장로
(관리국장)

우리 총현교회는 북한 선교를 하는 교회요, 북한 선교 하면 김장인 목사님이라는 것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지난 1977년 북한선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초교파적으로 북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에 연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북한 선교에 대한 열기는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구심점을 잃은 채 식어만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4년 동안 북한 선교에 대한 열망과 관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구호

로만 북한 선교를 외쳤고 겉질로만 북한 선교를 꾸미려고 했지,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고 결과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기만 하였습니다. 물론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동서가 화해하는 해방 무드를 타고 남한과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다시 열기 시작할 무렵, 남북통일과 북한 선교에 관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북음화된 통일 조국을 내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낱 구호에 그치는 것이었고, 북한 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는 소홀했던 우리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다시금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란 다음 아년 지난 3월 16일에 개최되었던 민족 북음화와 북한 선교를 위한 특별 기도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북한 선교에 대한 사명을 재차 발견하고, 6백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서부전선 대성리에 소재한 통일촌교회에서 개최되었던 이 특별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감사와 회개를 하면서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북한 선교에 임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소문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감격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얼마전 남북한은 교위금회담에서 1995년을 통일 원년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3년을 남겨 놓은 기간

동안 우리들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3년이란 기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먼저 당회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북한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시대적 사명을 항상 기억하고 이 기간동안 더욱 열심히 북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 나라에 북음이 전파되었을 때, 가장 강렬하게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곳이 바로 북한의 평양입니다.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일컬어지던 그곳을 북음의 능력으로 되찾아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북녘땅의 잃은 형제를 북음으로 다시 찾고 백두산의 소나무를 베어다가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북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북음화된 통일 조국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북한 선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하신 일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일에 전력을 쏟지 못했던 지난날의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알차게 북한 선교를 전개해 나갑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고 7천만 우리 겨레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호 칼럼은 송기홍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식당을 찾아서◀

내 집의 잔치를 준비하는 심정으로

우리 중현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선교관 지하에 있는 식당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식당에 가본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가슴부터 발목까지 가릴 수 있는 앞치마를 두르고 하얀 장화를 신고서는 일반 가정에서는 보기 힘든 대형 밥솥을 들고 주방을 누비고 다니는 식당 직원들을 유리 칸막이 너머로 볼 수 있다. 이번 주 주간중현에서는 이들을 만나보았다.

우리 교회 식당에서 성도들의 주일 식탁을 담당하고 있는 식당의 직원들은 모두 여덟명. 이들 가운데 박민례 권사와 오는 31일에 권사로 취임하는 박정구 집사는 우리 교회가 장남으로

이사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곳에서 봉사하여 왔다. 그밖에도 다른 직원들 가운데는 식당업에 종사했던 경험자도 있다.

이들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소에는 오전 9시에 출근하여 그날의 점심식사를 준비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설거지를 마치고 김치를 담근다든지, 저녁 식사 예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 9시나 10시경에 퇴근한다. 그렇지만 결혼식이 있거나 대외적인 행사가 있는 날에는 아침 7시부터 식사를 준비하거나 아예 교회에서 바로 전날 잠을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한 가정에서 무슨

잔치가 있을 때에 주부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데 소요되는 정성과 시간을 모두 쏟고 있다는 느낌이다.



결혼식이나 특별한 행사가 없는 평일에는 하루 평균 150여 명이 교회 식당을 찾고 있지만, 주일 하루 동안 교회 식당을 이용하는 성도의 수는 대략 3,500명에

서 4,500명이다. 이들의 일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에스더, 루디아, 마리아전도회가 지회별로 돌아가면서 이들을 돕고 있어 식당 직원들은 누구에게보다도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주일에는 2부예배나 3부예배가 끝난 후 식당으로 가보면 식사하러 온 성도들로 왁자작자하고, 이에 못지 않게 주방은 발들여 놓을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들의 식단의 일부를 맡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쁘단다. 또 교회 사정상 더 좋은 것으로 식단을 차리지 못하고 된장국에 김치 반찬이 주종을 이루는 식사를 하고도 '맛있게 잘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피곤이 모두 가신다고 한다.

식당에서 봉사하면서 종종 안타까움을 느낄 때도 있는데, 주일 저녁 식사나 특별 신청으로 식사 준비를 할 때, 신청한 음식의 분량과 실제로 식사하는 사람의 수에 차이가 생겨 음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성도들이 이해하는 아량을 가져주었으면 한단다. 또 식당을 찾는 성도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의자를 탁자 속으로 밀어넣고, 자신들이 사용한 식기류를 수거 장소에 바로 갖다 놓았으며 하는 것도 이들의 바램이다.

중등2부 오늘 노방전도 나가

중등2부(부장 박영식 장로, 지도 김학진 목사)는 오늘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이번 노방전도는 교회 차원에

서 전개하고 있는 전교인 배가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영어교육부 21일에 성경학교 개최

영어교육부(부장 김천재 장로, 지도 손영준 목사)는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선교관 5층에서 겨울 성경학교를 개최하였다.

유치부에서부터 성인부까지 70명이 참가하여 실시된 이 성경학교는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의 실수를 용서하고 가정에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형제, 자매로서의 역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인형극, 부모에게 사랑의 편지쓰기, 포스터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나누었다.

영어교육부는 오랜 외국 생활 후 귀국한 성도들의 자녀들이 한국 생활을 익히고, 외국에 나가 고자 하는 가정의 외국 생활을 신앙 안에서 준비하도록 도와주고,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신앙 교육을 맡아오고 있다.

영어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 베다니홀에서 있고, 오전 10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선교관 4층에서 분반공부를 실시한다.

영어교육부는 분반공부에 관심이 있거나 교사로 봉사하기 원하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차량스티커 재발급

관리국은 성도들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발급하였던 차량스티커의 모양을 바꾸어 재발급하기로 하였다.

재발급을 원하는 성도들은 관리국에 기존의 등록번호와 교적번호를 제시 하면 새로운 차량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

4월 금요특별집회 초청 간증자 명단 5월부터 김민식 집사가 찬양 인도

교회는 금요특별집회를 더욱 은혜 충만한 가운데 진행시키기 위하여 김민식 집사(천우교회)를 특별 강사로 청빙하여 집회

92년도 제2차 세례식 거행

92년도 제2차 세례식이 지난 3월 20일 저녁 7시 갈릴리홀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세례식에서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학습과 유아세례와 입교와 개종을, 송태근 목사와 김해규 목사와 김창수 목사가 세례를 집행하였다.

이날 72명이 학습을, 90명이 세례를, 36명이 유아세례를 받았으며, 6명이 입교를, 1명이 개종을 하였다.

'에베소서강해' 테이프 셋트로 보급

교회는 그 동안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수요예배시간에 해오던 에베소서강해 설교가 모두 끝남에 따라 그 동안 제작해놓은 테이프 14개를 한 셋트로 묶어 만원에 보급하기도 했다.

말씀 하나하나에 숨어 있는 기독교의 교리와 윤리에 관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이 테이프를 통하여 신앙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때마다 찬양 인도를 담당하게 하였다.

한편 4월에 간증을 맡은 성도들은 다음과 같다.

날짜	이름	소속	개
3일	민병운 권사	한국에스더구국기도회 전회장 만민원 원장	
10일	장옥조 집사	복음성가 가수	
17일	심수봉 집사	가수	
24일	서희옥 전도사	원혜준양 어머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모든 고난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림 생각
함으로 이기게 하신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네

예수 그 이름을
말로 다 할 수 없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되신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네.

송형희 자매
(총합예술선교단장)
《'송명희 찬송시집 5'에서》

제3교구 가족 모임 지난 17일 저녁에



제3교구(교구장 조인제 장로, 지도 김해규 목사, 부지도 임태주 전도사)는 지난 3월 17일(화) 저녁 7시 만나홀에서 교구 가족 모임을 가졌다.

250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이 모임은 조인제 장로의 사회와 박승준 장로의 기도, 김해규 목사의 설교로 예배를 드렸고, 전승훈 집사의 인도로 찬교를 나누었으며, 해정숙 성도의 간증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교회 배가 운동의 일환이었던 이 모임은 교구 부흥과 새가족들과의 교제의 시간이 되었다.

주인을 찾는 분실물

관리국에서는 교회 안에서 습득하여 경비실에서 보관되어온 물건들을 오는 4월 5일(주일) 동문 경비실 앞에다 전사해둠으로써, 주인을 찾아 돌려주기로 하였다.

이날 찾아가지 않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관리국에게 폐기 처분한다고 하니, 물건을 분실한 경험에 있는 성도들은 이곳에 들리어 확인해보기바란다.